

## 「도전! 발명골든벨」 개최

발명 끼로 뚝뚝 뚫친 100인의 전사들이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원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특**허 60년, 지식강국코리아를 내걸고 다채로운 발명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특허청은 대한민국 발명계를 선도할 꿈나무들의 무한한 열정과 발명 끼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에서 「2006 도전! 발명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 5개 고교(남대전고, 대덕전자기계고, 대신고, 성모여고, 충남기계고)의 발명동아리 학생과 끼 있는 학생들이 「발명」이라는 공통 주제로 모인만큼 한 마음 한뜻으로 문제를 풀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발명품 (음악소리나는 변기, 손으로 가는 자전거, 배틀 로봇)이 소개되었다.

또한 한국 축구 4강을 기원하는 순수한 마음을 담아 정전기방지 유니폼, 건전기와

자석달린 축구화 등 발명동아리 학생들의 이색 발명품이 소개되었다.

본 행사는 배재대학교, 대전광역시 교육청, 전국지식재산센터 중부 협의회의 다각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발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전상우 특허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골든벨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번 도전! 발명 골든벨이 지난해 8월에 개최되었던 영남지역 도전! 발명골든벨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인 만큼 방송을 시청하는 전국 청소년들에게 발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중요성을 인식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는 지식강국 코리아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주요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한 베트남에 대한 상표출원의 길이 열린다

**특**허청에 따르면, 베트남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특허청을 통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베트남에 상표를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트남에 대한 상표출원은 베트남 특허청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출원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마드리드 의정서 절차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서도 베트남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거절사유가 없는 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절감됨은 물론 우리나라 특허청을 경유

하므로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애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하나의 출원서로 최대 68개 회원국을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다국가1상표출원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날로 그 이용률이 증가하는 국제상표출원제도이다.

특히, 최근 베트남에서의 한류 바람과 한·베트남 간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였지만 현지 베트남인들이 우리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오리온 초코파이 사건 등 한·베트남간 많은 상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특허청 간부진, 고객 현장 속으로

### 「특허고객센터 일일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허청은 청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고객접점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특허고객센터 일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청이 지난 5월 1일부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여 실천하는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특허고객센터 일일 현장체험은 6월 7일 전상우 특허청장을 시작으로 국장급 이상 간부 24명이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전 특허청 및 서울사무소의 특허고객센터에서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

## 우수 발명 홈페이지에 공식 엠블럼 부여

**정** 부가 실시한 「개인 발명 홈페이지 공모전」에서 발명교사의 홈페이지(사이버 발명교실, invent.nafree.net), 개인발명가의 홈페이지(아이디어와 발명특허, cafe.daum.net/edisons) 및 발명 칼럼니스트의 홈페이지(발명웹진 발명세계, invention.jungbo.net)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고 특허청은 지난 6월 5일 밝혔다.

특허청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 청소년들의 발명교육을 목적으로 개설된 홈페이지, 출원인·발명자들에게 특허업무 실무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와 재미있는 발명품 및 발명이야기를 제공하는 홈페

이지를 각각 1개씩 선정하고, 앞으로 이들 홈페이지는 특허청이 부여하는 공식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우수작 선정기준으로 발명·지식재산 콘텐츠의 독창성, 충실성, 다양성, 이용편의성을 고려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이 수상작 홈페이지에 부여한 엠블럼은 다음과 같다.



그램이다.

이번 일일 체험은 고객안내·고객상담·각종 서류 접수 및 발급 등으로 구성되고, 체험 후 고객센터 직원과의 대화 시간도 갖게 된다.

특허청은 이번 체험을 통해 본부장급 간부들이 고객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서비스 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 걸맞은 조직적인 노력을 위한 특허청 간부들의 활동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현재 특허청 본부장급 간부들은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혁신점검회의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영어로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매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혁신특강을 듣고 토론하는 혁신 Special 프로그램 및 혁신 관련 서적을 읽고벤치마킹 사항을 도출하는 「혁신 Reader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의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통계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6시그마 프로젝트의 과제 관리자(Champion)로 활동하는 등 각종 혁신활동의 리더로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간기업과 경쟁해도 앞서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간부들의 역량과 특허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고객감동경영 실현을 위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특허청 연구회, 고객감동경영의 초석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심판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

**특**허청은 2006년 5월부터 중앙책임은 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경영을 추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구모임인 특허청 연구회가 향후 특허 심사·심판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현재 17개월 수준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06년 말까지 10개월로 단축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실과 바늘의 관계인 우수한 품질의 심사·심판 수행 역시 중요한 사항으로 특허청 내 총61개 연구회가 특허관련 법제

도, 기술,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욕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로 연구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화학특허관례연구회는 1996년 4월 '관례교실'의 후신으로 심사관 중심으로 결성된 자발적 연구모임으로, 특허심사관에게 특허제이론을 정립하고 다양한 특허쟁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01년·'03년 행자부 우수상, '04. 중앙인사위 우수상 등 우수 공무원 연구모임을 수상한 바 있다.

## 특허검색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하세요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제공 개시

**연**구개발자들이 자기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좀 더 편리하게 특허검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고객감동 행정실현의 일환으로 산업재산권 무료검색서비스인 KIPRIS의 특허검색서비스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

는 특허검색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란 특허검색을 희망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허검색창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특허를 검색할 경우, KIPRIS에서 검색된 결과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으로 연결·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로 인해 사용자들은 마치 자기 기관이 자체 특허검색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편리하게 특허검색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단순 링크서비스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고객지향적인 새로운 정보공유 서비스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민간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동 서비스를 시범실시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6월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연구소·대학 등 연구개발의 주체들은 특허정보 자체 DB구축 시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허기술 정보를 내부 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정보 이용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특허정보의 이용자도 증가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특허정보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개인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서비스지향기반의 웹서비스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특허청 정보기획팀 및 한국특허정보원 KIPRIS 운영팀에 신청하면 된다.

- ※ 특허청 정보기획팀 (042-481-5077)
- 한국특허정보원 KIPRIS 운영팀
- (02-3452-8144, 내선번호 322)



# 이용자에게 편리한 우선심사제도로 거듭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 확대

**특**허청은 누구나 손쉽게 실용신안의 우선심사<sup>1)</su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을 특허출원의 경우보다 확대하고, 우선심사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처럼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권리 존속기간이 출원 후 10년으로 특허출원(출원 후 20년)에 비해 짧다는 점과, 전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 67%가 개인출원이라는 점, 그리고 수명(Life-Cycle)이 짧은 기술이 많다는 점에서 특허출원보다 우선심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심사는 심사청구 후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는 데 반해 우선심사는 우선심사신청 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우선심사대상은 자기실시(준비) 중인 출원이거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등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우선심사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

워, 개인출원인들에게는 우선심사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대상 확대 안에 따르면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출원인이 판단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명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출원인들의 우선심사 이용에 따른 편리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우선심사대상 확대안의 시행 시기를 '06년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최소의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06년 5월 1일 시행된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의 최소정액제<sup>2)</sup>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1) 우선심사 : 국익 및 발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 없이 우선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최소정액제 : 종래의 특허우선심사신청료는 기본료(135,000원) + 허가산료(32,000원/항)으로 청구항수에 따라 가산료가 부과되었으나, 가산료를 폐지하고 청구항이 1항인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금액(16만 7천원)을 정액제로 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부과하는 제도

# 특허심판 처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긴다

## 집중심리제 도입 등 심판제도 혁신으로 고객 편의증진

**특**허청은 현재 10개월 여 소요되는 심판처리기간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6개월로 앞당기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형 심판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심판처리기간 단축은 관련 기업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국가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심판처리기간 단축 등 심판 및 소송제도개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되면 특허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고 특허기술 사업화를 정상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허청은 심판관 증원과 더불어 심판청구서류 처리절차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집중심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집중심리제」는 양당사자간 공방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쟁점을 한꺼번에 파악함으로써 기간 단축과 더불어 심판결과(심결)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함께 잡을 수 있는 「심판제도 혁신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종전에는 당사자간에 답변서 등을 주로 서면으로 주고받으며 쟁점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허심판원은 제3자의 정보 제출 시 이를 심판절차에 반영하여 심결의 정확성을 높이고, 무효심판절차 중 피청구인에게도 정정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제도를 개선하는 등 크고 작은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심결취소의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심판품질을 높이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오·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심판품질을 높여 당사자의 심판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것은 추가적인 특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제공 특허청